

<특 집Ⅱ>

독서치료에서 도서관 버전 만들기



김정근*

그동안 젊은 연구자들과 더불어 <책읽기를 통한 정신 치료 연구실> 활동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몇 가지 생각이 있다. 첫째, 독서치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무엇보다 책을 매개로 하는 마음 치유의 '체험'에 활동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다분히 사교육시장이 주도하는 '지식형' 모형은 곤란하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했다. '체험'은 제치고 독서치료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는 모형은 다분히 그 동기와 유용성의 면에서 의심

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둘째,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독서치료 관련 활동에 관한 한 도서관이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믿고 따라갈 만한 다른 중심체가 마땅히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고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 일은 사실 쉬운 과제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우리 연구자들의 꿈이자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그 사이 몇 년의 모형실험 기간을 거쳐 지금은 도서관 현장에 적용되는 흐름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국면이다. 아래에서 전해보는 작은 이야기도 그 흐름의 한 부분이다.

지난 겨울 전석자 관장과 박현영 사서가 근무하는 양산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나절 동안 머물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관찰을 할 수 있었다. 마침 이 도서관 최초의 독서치료 강좌 11주 과정을 마친 주부 그룹과도 동석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jgunkim@yahoo.co.kr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관장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박현영 사서가 진행하는 이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이어서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우선 이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큰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책읽기를 통한 마음 치유'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하여 마음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고 그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독서치료의 핵심이다. 교육과정은 책읽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황별로 주어진 매체를 읽고 상호토론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인용 가운데 드러나듯이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을 '체험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사교육시장의 '지식형'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이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상황과 매체가 다음과 같이 다채롭고 흥미 있게 제시되어 있었다.

- 1회(2005. 9. 21.) 오리엔테이션: 독서치료란 무엇인가?
- 2회(2005. 10. 25.) 상황: 가부장사회; 매체: 전인권, 『남자의 탄생: 한 아이의 유년기를 통해 보는 한국 남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 푸른숲, 2003.
- 3회(2005. 11. 2.) 상황: 심리이해; 매체: 김형경, 『김형경 심리여행 에세이 사람풍경』 아침바다, 2005.
- 4회(2005. 11. 9.) 상황: 우울증; 매체: 김혜남,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중앙 M&B, 2003.
- 5회(2005. 11. 16.) 상황: 성장의 아픔; 매체: 니콜 파브르, 『상처받은 아이들: 유년기의 상처를 말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기』 김주경 옮김. 동문선, 2003.
- 6회(2005. 11. 23.) 상황: 자아찾기; 매체: 메리 파이퍼,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딸과 여자들의 44가지 사례 연구』 김영재 옮김. 문학동네, 1999.
- 7회(2005. 11. 30.) 상황: 나이들; 매체: 람 다스, 『성찰: 나이들과 변화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강도은 옮김. 씨앗을뿌리는사람, 2002.
- 8회(2005. 12. 7.) 상황: 학대; 매체: 이호철, 『학대받는 아이들』 보리, 2001.
- 9회(2005. 12. 14.) 상황: 부모; 매체: 김정일, 『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박영출판사, 2002.
- 10회(2005. 12. 21.) 상황: 죽음; 매체: 미치 앨봄,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공경희 옮김. 세종서적, 2002.
- 11회(2005. 12. 28.) 상황: 삶은 어렵다; 매체: 스캇 팩,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철 외 옮김. 열음사, 2004.

진행자인 박현영 사서는 거의 대부분의 모임에서 참여자들의 만족감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한 두 모임을 제외하고 거의 매번 진한 감동이 있었고 가끔은 눈물을 보이는 예도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만난 주부들도 내면의 치유 체험을 말하면서 다음에 있을 심화과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첫 실험으로서 대단한 성공이었다. 이것은 다분히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봉사 메뉴의 탄생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양산도서관이 보여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무엇이 처음의 희망 사항을 지금의 엄연한 현실로 바꾸어놓고 있는가? 우리는 그 비결이 '체험형'에 있다고 믿는다. 흔히 보는 진행자 중심의 '지식형'은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